

— 11월호 Vol.4 —

한동해 포럼 Newsletter

을죽

2020. 11. 15

트럼프냐? 바이든이나? 그리고 울독의 시계는?

정진호 회장 (한동대학교 교수)



울독(울릉도와 독도)을 21세기의 지중해 동해의 배꼽으로 만들려는 목표로 출범한 유라시아 원이스트씨 포럼(약칭, 한동해 포럼)이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났다. 11월 30일에는 처음으로 전 회원들이 함께 모이는 연말 정기 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다 같이 모여서 진지한 회의도 하고, 회원간의 정담도 나누고, 맛있는 만찬도 함께할 그런 꿈을 꾸고 있는데... 여전히 울독의 시계(視界)는 불투명하다. 3차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었다는 해외뉴스에 이어 한국에도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보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세상에 살게 된 것이다.

세계가 주목한 미국 대선 역시 바이든의 승리가 확정된 듯 하나 트럼프의 불복 선언으로 여전히 혼선이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의 불확실성에 더하여 미국 대선 결과가 가져올 불확실성이 정치권의 시계 또한 오리무중으로 만들고 있다. 전 세계가 미국 대선에 촉각을 세우고 지켜보는 까닭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미치는 영향력이 그만큼 막강하다는 뜻일게다. 그러나 미국을 바라보는 남과 북의 정치권의 관심이 그 어떤 나라보다도 클 수 밖에 없는 것은 최근 긴박하게 돌아간 남북미 관계를 포함한 깊은 역사적 애증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민족의 근현대사 150년은 미국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흘러왔다. 남북관계의 극적인 전환점을 기대했던 2018년을 마치 빛바랜 오랜 추억처럼 만들어버린 것 역시 북미 회담의 결렬이 가져온 결과가 아닌가?

1866년 평양을 가로지르는 대동강을 따라 올라오며 강제로 우리를 개항시키려 하던 미국의 무장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격침되었을 때, 그 당시 평양감사는 박규수였다. 박규수는 연암 박지원의 손자로서 김옥균, 박정양, 박영효, 서재필 등의 개화파를 키워냈고 강화도 조약도 찬성했던 사람이었기에 그가 미국인의 통상요구에 무조건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낳는다. 그만큼 미 상선에 타고 있었던 자들이 식량을 들고 대화를 하기 위해 찾아간 조선 병사를 감금하며 무례하게 조선인들의 감정을 북돋았던 것이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개항의 시기를 놓치고 결국 10년 후 일본에게 치욕적인 강화도 조약을 맺음으로 일본 식민지의 단초를 제공하고 말았다.

우리 나라의 근대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세 사람의 미국 대통령이 있다. 시오도어 루즈벨트는 러일전쟁 막판에 카츠라-테프트 밀약을 통해 우리나라를 일본에게 넘겨주어 식민의 역사를 열었다. 우드로 윌슨은 1차대전 중에 민족자결주의를 선언하여 민족지도자들에게 구세주처럼 다가와 정의로운 나라 미국에 대한 커다란 기대를 갖게 하였고 독립의 희망을 안겨주어 3.1운동과 임시정부를 시작하게 만들었던 사람이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열린 파리강화회의에서 우리 대표단을 거부하여 실망시킴으로써 독립운동진영 중 많은 지식인들이 공산주의에 희망을 걸고 레닌에게 달려가게 만든 결과를 낳았고 좌우 분열의 역사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다. 그리고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2차 대전 막바지에 우리나라를 일본 대신 분할하는 신탁통치안을 처음 구상했던 사람으로서 분단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그들은 모두 미국의 국익에는 크게 기여하여 존경받는 대통령이었을 뿐 아니라 세계적 전쟁을 끝내고 평화조약을 체결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까지 거머쥔 사람들이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종전 직전에 뇌졸중으로 급사하지 않았다면 그 역시 2차대전을 끝낸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 것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그 뿐인가? 미국 육군부 작전국의 지시로 3·8선을 30분만에 그어버린 미국 육군장교 딘 러스크는 마치 볼튼과 같은 전형적인 친일 정치인이었다. 후일 케네디와 존슨 대통령 시절 국무장관까지 역임했던 그는 한국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51년 9월, 미국이 패전국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열었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측의 요구를 들어주어 독도를 일본이 반환해야하는 부속 도서에서 제외시킨 장본이기도 하다. 그로인해 마땅한 우리 땅 독도를 지금까지 마치 국제적 분쟁지역인 것처럼 만들어 버린 것이다.

그 같은 어둠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분명 대한민국은 한국전쟁을 치르며 미국의 도움을 받아 자유민주주의를 지켰고, 미군의 장기 주둔을 통해 국방 보다는 경제 발전에 주력함으로써, 세계가 놀라는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이루게 된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1958년 중공군을 본국으로 철수시킨 후, 자주국방을 외쳤던 북한이 거꾸로 경제침체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난 것과 대조적이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실리를 버렸다면, 우리는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실리를 챙겼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우리가 이루어낸 경이로운 산업화와 민주화의 열매를 사랑하는 동안 북한은 핵무력 완성 선언을 하면서 미국 대통령과 세계 매스컴 앞에서 나란히 서는 또 다른 면모로 세계 무대에 깜짝 등장 하였다.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아우성인 동안, 북한은 나홀로 길을 걸어가며 국경을 걸어잠갔다. 그리고 이제 남과 북이 함께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유라시아 한동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분명히 남과 북의 새로운 변화와 연합, 그리고 상생의 시대를 열어야만 한다. 그것이 한반도의 평화시대를 열고 울독의 시계를 밝히는 길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를 위해 우리는 막연히 미국만을 바라보고 기다리고만 있어야 할 것인가? 그럴 수는 없다.

이제 우리도 70년전 강대국의 줄 굿기 하나로 속절없이 분단을 강요당하던 그런 약소국이 아니다. 세계 6위의 군사국방력을 보유하고 10대 경제 대국으로서 대통령이 G7에도 초청받는 남쪽 대한민국은 효과적인 K-방역으로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북핵 역시 미국 대통령을 협

상 테이블에 끌어낼만큼 세계인의 이목과 위기 의식을 집중시키고 있다. 당분간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면, 우리는 이제 북핵 또한 싫든 좋든 현실로 받아들이며 북핵을 전제로 한 외교정책과 남북협상의 해법을 도출해야만 한다. 우리의 우방 미국이 이 어려운 국면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절대 의지할 수도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한국을 둘러싼 4대열강, 그 누구도 우리가 연합하여 통일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원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길은 우리 스스로 개척하여 열어야만 하는 그 길인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소유한 미국 대통령이 선출되어도 그들 나라의 국익을 우선으로 할 것이기에, 냉혹한 국제정치 무대에서 우리는 번번히 희생을 당해왔고, 분단의 역사는 지속되었다. 오히려 세계의 이단아처럼 비추어졌던 트럼프가 유일하게 남북 분단을 강요하던 긴 세월을 뛰어 넘어 처음으로 북한을 세계무대에 등장시켜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통령이 되었던 아이러니를 기억해야 한다. 지난 3년간 우리 민족의 운명을 가늠할 큰 사건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그 중에 가장 큰 두 가지 사건이 북핵과 남코로나로 상징되는 사건이다. 북핵의 등장과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냉전구도 속에서 한반도를 분단상황으로 묶어두려는 강대국의 국제적 이해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충분한 기회요인을 만들었다. 이제 최강국 미국의 권력이양기에 과거에 그랬듯이 북한이 선제적 무력시도를 통해 눈길을 끌고 긴장을 고조시켰던 그런 시도가 반복되어서도 안되고 그럴 필요도 없다. 지난 하노이 회담의 교훈을 통해 남북한 정부는 대미외교를 통해 냉전구도를 풀어보려는 과거지향적 방법론이 더이상 통하지 않음을 깨우칠 필요가 있다. 대미 대중 다자

외교가 반드시 필요하나, 그것은 활과 화살의 남북 연합의 기초 위에서 마지막 활시위를 당기는 것이 되어야만 한다.

바이든이나? 트럼프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어쩌면 앞으로의 6개월은 역사상 가장 정치 경제의 시계가 종잡을 수 없는, 마치 태풍 전야의 울독의 시계처럼 오리무중으로 흘러갈 것이다. 바로 이 때가 기회인 것이다. 세계 최강의 패권 국가 미국의 주인이 부재한 그 시기에 우리는 남과 북이 다시 만나서 민족 자결권을 선언하고, 담대한 연합과 상생의 여정을 열어가야만 한다. 그리할 때, 새로 선출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도 경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며 스가 총리와 푸틴도 함께하는 신북방 시대도 열어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울독의 시계를 밝히는 길이며, 유라시아 한동해 시대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는 첩경이 될 것이다.

울릉과 원산을 오가는 크루즈가 다니고, 포항과 단천에 남북해양수산교류협력센터가 세워지고, 남북의 청년들이 오가며 학술대회와 축구시합을 하며, 울독에서 청년캠프를 함께 하는 시대가 열리기를 바란다. 그를 위해서는 반듯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그리고 북미수교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 역사적 사건을 이루어낼 남북 지도자와 미국 대통령을 바란다. 그리고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70년 넘은 마지막 냉전을 끝내고 다시 한번 노벨 평화상을 받는 미국 대통령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하기를 믿음으로 기대한다.

의사는 무엇으로 사는가?

반정민 이사 (포항 민이비인후과 원장)



톨스토이는 그의 작품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소설에서 인간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적 한계에 있지만, 그들의 본성 안에 있는 깊은 사랑과 힘든 이웃에 대한 따뜻한 배려를 보여줌으로, 인간에 대한 신의 아름다운 섭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중인의 계급에 머물렀던 의사직업은 근대에 이르러 의료 과학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약제의 개발 덕분에 법률가와 함께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는 유망 직종이 됩니다. 더구나 사람의 생명을 다룬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차원이 다른 권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의사는 스스로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속에 빠져 있기도 하죠. 간혹 이런 분들은 흰 가운을 마치 바바리 코트처럼 입고서 환자 대기실을 휘젓고 다니는 것을 즐겨하시는 분들이죠.

의사(醫師)의 “사”자는 판사(判事)나 변호사(辯護士)와는 다른 “가르칠 師”자를 씁니다. 한마디로 교사, 목사처럼 환자의 문제점을 알고 조언과 권면을 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보면 저도 환자분들께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는 말을 많이 하네요. 듣는 환자분 입장에서 병의원이 기분 나쁜 이유중 하나이기도 하겠네요. 새삼 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의사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환자분의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명의를 뒤흔다면 환자복도 있어야 되나 봅니다.

의대를 졸업한지 25년이 지나니 대학 동기들 사이에선 누군 성공했고 누군 망했고 라는 얘기들이 자주 들립니다. 그러면서, 의사로서 성공의 기준이 한결같이 경제적 성공에 있음이 아쉽습니다. 누군 큰 병원 건물 올렸다더라, 누군 환자 대박 많다더라. 조금 더해서 서울 강남에 아파트 있다더라. 자녀들이 의대 갔다더라. 그런것들이죠. 아... 저는 쫄딱 망했군요 ~~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보니 자본의 많고 적음이 성공의 기준이 되는 건 어쩔수 없겠지만, 의사로서 제가 실패했는가라는 질문에는 글썽요, 쉽게 동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큰 빌딩이 있어도 의사로서 실패한 동료들 제 주변에서 자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의사로 살면서 언제 가장 행복했는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 톨스토이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환자분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그 형편을 헤아리고 정직하게 제가 아는 한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환자분이 감사하게 받아주실 때 의사로서 가장 보람있었던 기억입니다.

병을 고치게 되었다고 감사인사를 전하셨던 수 많은 분들, 이 도시를 떠나 이제 못 볼 것 같다고 의사에게 건강하라고 건넨 안부인사들, 누르고 풀어대던 꼬맹이가 자라서 결혼한다고 전해준 청첩장, 퇴직했던 직원이 잊지 않고 출출할때 들고 온 죽전부리들,

돈으로는 살수 없었던 이런 수 많은 감사들이 저를 행복하게 하였고, 돌이켜보면 그런 고마운 분들이 지친 의사를 고치고 치유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예전에 비해 이런 훈훈함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저의 매너리즘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병원 문턱이 많이 낮아지고 또 병원이 많아진것도 이유겠지요. 또 돈을 지불함으로 모든 친절을 샅샅이 다 샅했다는 물질주의와 이기주의의 시대상도 한 몫 하지 않았나 합니다.

그래서 이런 허기짐을 채우려 멀리 해외로 의료봉사를 나가 보기도 했지만, 장비도 없이 말도 통하지 않고, 약품 몇가지로는 한계가 있기에 오히려 그들에 대한 미안함만 가지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중, 울독을 통해서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장시간 비행기 탈 필요도 없고, 버스에 온갖 수술과 영상장비를 싣고, 통역도 필요없는,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평생 본적도 없을, 저를 목메어 기다리는 환자들이 넘쳐나는 땅. 그 땅이 불과 몇시간 거리에 있다는 것이, 이 땅에서 쫓딱 망한(?) 의사의 새 희망이 됩니다. 포항 영일만 항에서 의료장비를 배에 싣고 동해를 가로질러 함경도의 해변도시로 떠나는 꿈, 그날이 곧 도래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머니의 신성(神聖)을 기리는 공간

이경숙 부회장 (박물관·수 관장)



가을이 오면 100년쯤 된 은행나무가 햇살에 익은 노란 색을 가득 안고 박물관 창가에 서있는 풍경을 바라볼 수 있어서 참 행복하다. 문득 저 많은 은행잎이 어디서부터 노랗게 물드는지 알고 싶어서 은행잎이 물들기 몇 달 전부터 나무를 바라보는 일이 하루의 중요한 일이 된 적이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쌀쌀한 기운이 어깨를 감싸고 내려앉는다고 생각할 즈음 은행나무 짙은 초록이 연두색처럼 열어지기 시작하더니 나뭇가지 끝에서부터 노랗게 물드는 것이었다. 내게는 뉴턴의 만유인력만큼이나 가슴 두근거리는 발견이었다. 조금씩 물들기 시작하는가 싶더니 어느 날 새벽 촛불을 켜든 것처럼 환한 은행나무가 서있었다. 내가 잠든 사이 은행나무는 열심히 물들고 있었구나. 아!하고 반갑고 고마운 탄성이 나왔다.

대구의 범어동 한 모서리에 작은 박물관을 열고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박물관을 연지는 10년이지만 박물관을 준비한 시간의 10년을 합하면 짧지 않은 시간들이다. 굳이 박물관의 꿈을 꾸게 된 것을 말한다면 아들을 품에 안았던 30년 전의 시간으로 거슬러 간다. 엄마가 된다는 것의 무게가 내가 배운 지식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아무것도 가르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그랬다. 나는 단지 생물학적인 엄마일 뿐 이 아이가 사회에서 자라기 위해서는 ‘사회적 엄마’라는 존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의 전통성을 가슴에 담게 해주는 것이 엄마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았다. 박물관은 그래서 만든 작은 학교였다. 부족한 능력이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작은 바퀴를 돌려 전통의 ‘알뜰’을 지켜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학생들에게 제한된 환경 안에서 가르치는 일은 교수법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했다. 대구대학교 교수학습센터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교수법에 대한 다양한 공부를 할 기회가 있었던 것도 큰 행운이었다.

박물관· 수(繡)는 자수박물관이다. 자수는 “실로 잦는 천상(天上)”이라는 말이 있다. 현실에서 이루기 힘든 것들을 꿈에서 까지 소원하는 공간이다. 그 자수에는 얼굴도 이름도 알 수 없는 이 땅의 평범한 어머니들의 삶이 담겨져 있다. 자수를 들여다보면서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박물관· 수는 이 땅의 역사를 지켜온 수많은 어머니들을 기리는 기도의 공간이다. 그 어머니의 마음을 따라가는 길 끝에 어찌면 우리가 치유되는 길이 열려 있을 지도 모른다.



2010년 개관하여 “오복을 부르는 꽃 수전-북주머니와 자수 베갯모전”, “한국의 근대 십자수전”, “태극-무궁화 특별전”, “한국인의 삶-목각인형전”, “인도민화특별전”, “세계 민속 그림 전”, “연꽃 향기 전”등 다양한 전시를 기획하였다.



그러나 박물관의 목적은 전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박물관 자체가 끊임없이 사회공동체와 교류하여야 한다. 과거와 현재, 미래와의 단단한 고리 역할을 해내면서 “사회적 엄마”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때 박물관은 어머니의 모성과 같은 끝없는 사랑의 근원이 되어 강한 원심력으로써 사회구성원의 마음을 결속할 수 있다. 하워드 가드너(Howard Gardner)가 말한 “전통이 강한 사회일수록 안정된 사회”라는 공감이가는 말이다.





박물관 수업은 자수가 가진 인문학을 들려주고 손에서 가슴으로 다가갈 수 있는 체험으로 이루어진다. 버선 향낭을 들고 “정말 예뻐요” 하면서 아이들이 환한 웃음을 터트릴 때 참으로 행복하다. “아이들에게 행복한 기억하나를 가슴에 심어주었으니 이보다 더 대단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라고 강사 선생님들은 말한다. 아이들에게 전통과 만나는 순간의 작은 기쁨을 느끼게 한 “발화점”의 역할을 하였으니 얼마나 대단한가 말이다. 작게나마 우리문화의 한모서리를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이 대가 없는 일에 누리는 행복이다. 그들은 “사회적 엄마”로서 ‘해리포터’의 교수처럼 악마의 마술에서도 풀려날 수 있는 주문을 아이들에게 준 것이다.

이제 박물관은 아이들뿐 아니라 갈수록 많아지는 노년 인구에 대비한 연구도 하고 있다. 박물관의 시간들이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게 일상을 다독여 한 땀 한 땀 기워 갈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국인의 참다운 정신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과 우리에게 옮겨 불기를 열망하면서 오늘도 재속에 묻어둔 불을 꺼지지 않게 다독인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은행잎 환한 촛불처럼 내 가슴으로 옮겨와 비로소 어머니와 내가 한 몸이 되었다. 전통은 우리를 모두 하나임을 깨닫게 하는 소중한 유산이다. 이 기억을 함께 하는 이가 많다면 가을 한나절 참으로 행복하겠다.

11월의 소식



1) 11월 9일날 유원포 포럼 이사회와 남북경협과제 사업계획서 발표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날 발표회에는 각 분과 분과장, 분과 별 연구위원을 비롯하여 김남일 경상북도 환동해지역 본부장, 이충일 강릉원주대 남북바다자원교류원 원장, 김형근 해조자원 연구부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2) 포럼 이사회 결정에 따라 11월 30일 오후 4시부터 우리 포럼의 올해 마지막 총회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꼭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신입 회원님들이 계십니다. 다 같이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창현 (인제대학 통일학부 외래교수님)

김매자 (울산병원 의사선생님)

한기양 (울산 새생명 교회 담임목사님)

서민태 (울산 저널 대표이사님)

4) 매달 15일에 발간할 뉴스레터 <울독>에 우리 포럼과 관련된 이야기 또는 컬럼이나 공지사항이 있으시면 포럼 공식 메일 (OneEastSea.Forum@gmail.com) 또는 안정윤 연구원(ahn123@handong.edu)에게 매달 5일까지 보내주세요.

5) 한동해 포럼이란?

① 소개글



6) 회원가입 안내

① 입회 신청서



② 정관

